

## 개념도를 통해서 본 고등학교 영재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

김 상 우

인천대학교

한 기 순

인천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의 개념도를 작성하여 영재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개념구조를 제시하고,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차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영재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영재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여태까지 강조되어 왔던 지식 영역뿐만 아니라 도덕성, 인성 등과 같은 정의적 영역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및 지도방법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영재학생 초점집단 63명의 브레인스토밍으로 얻어진 진술문들을 종합하여 64개의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고, 이들 진술문은 초점집단 63명 중 다시 선발된 13명의 연구 참여자에 의해 분류, 평정되었다. 그 후 다차원 척도분석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개념도를 작성한 결과 고등학교 영재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은 총 5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군집명은 ‘용납할 수 없는 친구의 부정행위’, ‘사회적 구조, 영재성, 그리고 부정행위 간의 불가분의 관계’, ‘부정행위 요구로 인한 심적 갈등, 대처 및 용인 수준’, ‘개인 내면의 비도덕성(도덕불감증)’, ‘도덕성과 사회정의에 근거한 판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학생 150명과 일반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각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likert 6점 척도로 표시하게 한 후 두 집단 사이의 인식 차를 살펴본 결과 ‘용납할 수 없는 친구의 부정행위’, ‘도덕성과 사회정의에 근거한 판단’ 군집은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전무하거나 매우 미미한 반면, ‘사회적 구조, 영재성, 그리고 부정행위간의 불가분의 관계’, ‘부정행위 요구로 인한 심적 갈등, 대처 및 용인 수준’, ‘개인 내면의 비도덕성(도덕불감증)’ 군집은 두 집단 간의 인식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학업부정행위에 관해 더 도덕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들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주제어: 영재성, 영재 고등학생, 학업부정행위, 도덕성

## I. 서론

우리나라의 현재와 같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학업성적은 학생들의 진학에 매우 큰 영향을 주며 또한 그것은 훗날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학벌을 매우 중요시하여 교육을 출세(出世)와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특히 우수한 학업성적을 학생의 미덕으로 여기고 이를 추구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많이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면 주인공이 장원급제(壯元及第)를 한 후 금의환향(錦衣還鄕)하여 쓰러져가는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는 식의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장원급제란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1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정규, 2003). 현대에 들어서는 유·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교육이 거의 대부분 대학입시 위주로 치달으면서 학생들의 ‘우수한 성적’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지게 되고 입시제도 과열의 부작용은 여러 가지 사회 병폐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바로 끊이지 않는 학업부정행위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그것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였다고 하는데(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조선시대의 과거(科擧)제도에서 학업부정행위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예비소집에 해당되는 부문(赴門)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위해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先占)하느라 건달들을 동원하여 폭력사태가 벌어짐을 일컫는 부문난장(赴門亂場)(이규태, 1991), 숙종 때 과거시험 부정행위 관련자들이 투옥되거나 처형당한 두 차례의 사건인 기묘과옥(己卯科獄)과 임진과옥(壬辰科獄), 순조 18년에 과거시험의 극심한 부정행위에 대한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이영하의 상소 등이 있으며, 조선의 최고 국립대학인 성균관(成均館)의 유생들도 대리 출석, 붓뚜껑 속에 답지 숨기기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전해진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그리고 현대로 들어와서는 1992년 부천의 모 대학에서 발생한 후기대 입시문제 유출사건이나 2004년 광주에서 발생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의 대규모의 부정행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지금도 어김없이 대수능 시험장에서는 해마다 수십 건 이상의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연합뉴스, 1992; 연합뉴스, 2004; 연합뉴스, 2011).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업성적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업의 당사자인 학생 모두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학업성적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감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오영희, 1983). 더군다나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비교해볼 때 높은 학업성적으로 인해 흔히들 말하는 명문대학 진학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좋은 진로를 획득할 가능성이 많고 주위에서도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영재학생들을 대하기 때문에 학업성적에 대해 외부로부터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으며(김승희, 2011), 또한 영재학생들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 또한 일반 학생들보다 높다(김호진, 2008). 이토록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마음먹은 대로 잘 나오지 않은 경우에 학생들은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이 증가하게 된다(김도균, 2001).

학업부정행위는 넓게 정의하면 ‘좋은 성적을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자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을 돕는 것까지도 포함된다(오영희, 1999). 이러한

학업부정행위의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노력하지 않고도 손쉽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지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되고 도덕불감증이 심화되는 등의 개인의 도덕성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부정행위의 전염력으로 인한 부정적 과급효과와 더불어 정직한 학생들마저도 주변에서 학업부정행위를 하여 좋은 성적을 얻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 심한 도덕적 갈등을 겪으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오영희, 2008).

학업부정행위가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과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도덕적 행위의 문제임을 고려할 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영재학생들의 도덕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일단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간의 정의적 특성을 비교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그러한 영재의 특성 중 한 가지가 도덕성이다. Piaget는 발달이 앞선 아동들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덜 나타난다고 하였다. 영재들은 또래보다 일찍 특정 상황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와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Gross(1993)는 영재들은 정의감과 공평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의 집단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영재들은 진실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지니고자 하는 특성이 있으며 영재들은 다른 사람의 위선과 이중성 등의 모순을 발견하고는 쉽게 감정이 상하며 이들을 거절하거나 스스로를 고립해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홍덕표 외, 2011).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생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성을 비교하는 연구에서도 모든 학교 급을 통틀어 영재학생들의 도덕성이 더 뛰어나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이현정, 2010; 유미현, 박은이, 홍훈기, 2008; 김인주, 이군현, 이기문, 하종덕, 1998). 그러나 유미현, 박은이, 홍훈기(2008)는 그러한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도덕 판단력의 우세함이 도덕적 행동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영재들의 경우 머리로 외우는 ‘앎으로서의 도덕성’은 높으나 몸으로 실천하는 ‘행함으로서의 도덕성’은 그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선, 우남희(2005)는 학업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점차 하향화되어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조차 학업부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빈도와 방법이 정교해진다고 하였고, 오영희(2004, 2008)는 학생들의 약 3/4 정도가 고등학교에서의 학업부정행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심각성의 2배를 상회한다고 보고하여 그 심각한 실태에 대해 경고하였다. 또한 김도균(2001)은 여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학업부정행위에 영향을 주고 구체적으로 학업성적, 부모, 친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허정경(2010)은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의 대상을 시험과 과제물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시험은 부모의 양육태도, 과제물은 친구의 영향력에 의해 학업부정행위가 발생하나 학생들의 도덕성은 학업부정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위에서 도덕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유미현, 박은이, 홍훈기(2008)의 지적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인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이고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며, 게다가 입시에 직면하여 학업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듯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재한 실정에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에 대한 바람직한 잠재구조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가 지니는 인식을 알아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수렴하여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을 이용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을 보다 현장감 있게 탐색해보고자 한다. 개념도 연구법은 특정 주제에 관한 방향이나 방침에 관한 정보가 미비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인식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이용한 집단 사고를 통하여 도출해내고 이를 종합, 편집하여 의미 있게 분류하고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구조적 개념화(structured conceptualization) 기법의 하나이다(Trochim, 1989). 이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도출된 자료를 그들의 관점에 근거해 직접 조직하게끔 함으로써 연구자의 신념이 아닌 참여자들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는 기존의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장점만을 살려 만든 통합적인 연구법으로서 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실제적인 관점에서 탐색한다는 면에서 질적 연구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연구 과정에서 통계적 방법이 사용되어 양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과 잠재구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Goodyear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개념도를 작성하여 그들의 인식의 개념구조를 제시하고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 간의 학업부정행위의 지각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영재학생들의 특성과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의 정의적 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방법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현재 초등 영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빈약한 고등학교 영재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개념도는 어떠한가?

나. 고등학교 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 차가 존재하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진술문 도출을 위한 초점집단은 총 63명이었으며, 일반학생과의 비교를 위한 설문에서는 영재 150명, 일반 160명이 참여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영재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을 구조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6개 일반계 고등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공동 영재학급 중에서 2개교를 선택하여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한 63명 중에서 남, 여학생 총 13명(남 7, 여 6) 개념도 작성을 위한 초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Johnsen, Biegel과 Shafra(2000)은 개념도를 작성할 때 초점집

단의 크기를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하였고, 민경화, 최윤정(2007)은 연구 참여자의 수를 최소 8명에서 최대 40명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주장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13명의 초점집단으로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한편, Trochim(2007)의 통상적인 개념도 연구 방법론에 의하면 이 초점집단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둘째는 이를 분류 및 평정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경우 본 연구자의 사전 기획 단계에서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 제시가 다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브레인스토밍의 취지로 볼 때 응답집단을 골고루 구성한다는 원칙만 준수한다면 가급적 많은 수의 인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65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서면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미제출한 2명을 제외한 총 63명(남 43명, 여 20명)으로부터 개념도 작성에 필요한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브레인스토밍으로 얻어진 진술문들은 본 연구자와 영재교육 석사학위를 소지한 영재담당 교사가 팀을 이루어 분석, 종합 및 편집하고 그 결과 얻어진 편집된 진술문들을 분류, 평정하는 과정은 브레인스토밍에 참여한 63명 속에서 다시 선발된 13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담당하였다.

위의 단계에서 얻어진 각각의 진술문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2차 조사(설문조사)는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지역공동 영재학급 및 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학생 150명과 남, 여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영재학생 집단과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일반학생 집단을 1, 2학년 학생으로만 구성한 이유는 고등학교 영재학급이 3학년을 제외한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므로 이와 균등한 집단의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8부(영재학생: 8부, 일반학생: 20부)는 통계처리에서 제외하고 총 282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예의 인식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를 개념도 연구법을 이용하여 영재학생들의 인식에 관해 보다 현장감 있게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개념도 연구법 절차를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 가. 개념도 준비 단계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 영재학급 소속 고등학교 1~2학년 남, 여학생 63명(남 43, 여 20)을 각각 개념도 작성을 위한 초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가 참여자들과 우선 rapport를 형성한 후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조사는 질문지에 서면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Brainstorming에 사용된 초점 질문(focus question)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학업부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이유나 경험, 느낌 등 학업부정행위에

대해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 나. 아이디어 산출 단계

위에서 제시한 초점 질문에 대한 자유반응식의 응답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지에 서면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수집하였고 이때는 어떠한 답변이라도 허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확보된 진술문들을 편집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수행하게 될 진술문 분류작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 과정은 본 연구자와 함께 영재교육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영재담당 교사가 팀을 이루어 함께 실시하였다. 편집의 과정은 중복되는 아이디어들을 하나로 통일하기, 아이디어들을 명료한 진술문으로 만들기, 또다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분류작업 등의 순으로 실시되었다(민경화, 최윤정, 2007). 이를 통하여 축약되는 진술문의 개수는 적어도 100개 이하로 만드는 것이 권장되는데(Kane & Trochim, 2007), 본 연구에서는 총 64개의 진술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다. 진술문 구조화 단계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산출된 진술문들을 카드로 만들어 초점집단 13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배부한 뒤 그들이 그 진술문들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게끔 하였다. 이때, 모든 진술문은 둘 이상의 폴더로 나누어 분류하고 각각의 진술문은 하나의 폴더에만 분류되게끔 하되 모든 진술문을 별개의 폴더로 분류할 수는 없음을 미리 알려주었다(Paulson & Worth, 2002). 이러한 분류 작업이 끝난 후에는 각각의 폴더 속에 들어있는 진술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각 폴더에 가장 부합하는 명칭을 붙이도록 하였다. 이 단계를 거쳐 얻어진 진술문의 분류 결과를 개념도 작성을 위한 다차원 척도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라. 개념도 분석 단계

개념도 분석을 위해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인 Exce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최초 입력 후 가공하였으며, 이를 통계 소프트웨어인 SPSS에 붙여 넣은 후 다차원 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MDS)과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HCA)을 실시하였다.

MDS를 통해 좌표평면 상에 각각의 진술문들을 개별적인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다 더 빈번하게 같은 군집에 속한 진술문들이 좌표평면 상에서 서로 가까운 위치의 점으로 표시되게 된다(Kane & Trochim, 2007). 13명의 연구 참여자 각각이 개별적으로 총 64개의 진술문을 분류하였는데 어떤 군집에 속해있건 간에 두 개의 진술문이 한 군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1, 다른 군집에 포함되는 경우 0으로 코딩하여 각자 한 개씩 총 13개의 진술문 유사성 matrix (64 X 64)를 만들고, 그 13명의 파일을 합산한 후 역코딩하여 집단 비유사성 matrix를 제작하였다. 최종의 개념도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이 집단 비유사성 matrix이다. 이 때 처음부터 비유사성 matrix를 만들지 않고 먼저 유사성 matrix를 만든 후 나중에 역코딩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이유는 두 개의 진술문이 한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1로 하지 않고 반대로 0으로 할 경우 데이터 입력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그 후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개념도에 나타난 점들의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 HCA를 실시하였다. MDS에 의해 산출된  $x, y$  좌표값이 HCA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되며, 군집의 수는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는데, 이때는 Ward의 연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각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평면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인 위치와 동일 범주로 묶인 진술문들의 내용을 근거로 하되 다음의 세 가지 지침을 근거로 하였다. 즉, 지도상에 문항들 사이의 상대적 거리들을 고려하고, 군집 내 문항들의 유사성을 검토한 후, 참여자들이 도출한 제목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최윤정, 김계현, 2007).

#### 마. 개념도의 해석 및 활용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인식 차 비교, 평가 단계)

개념도에 대한 해석은 연구 결과에 해당되므로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작성된 개념도를 근거로 고등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 차를 비교하기 위해 진술문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각 진술문에 대한 개인의 동의 여부를 Likert 6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여기에서 6점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홀수 배점에서 나타나게 되는 ‘보통이다’라는 선택을 배제하여 동의·비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그 후 두 집단 간의 인식 차에 대한 유의미성을 밝히기 위해 통계 소프트웨어인 SPSS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개념도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결과로 얻어진 진술문들을 정리한 결과 총 64개의 진술문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각 진술문 간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여 군집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2차원 positioning map을 분석 기준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3차원 이상일 경우 시각적인 표현의 제약 때문에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64개의 진술문들에 대하여 비유사성 matrix를 이용하여 다차원 척도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MDS)를 실시한 결과 2차원 개념도 작성에 적합한 stress 값은 .253이었다. stress 값이란 MDS 모형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불일치 정도로서 대상들 간의 실제거리와 추정거리 사이의 오차를 의미하는데, 이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추정거리와 실제거리가 완전히 일치하면 0이 된다. 그러므로 stress 값이 작을수록 추정거리의 적합도는 높다(이학식, 임지훈, 2011).

Kruskal과 Wish(1978)가 제시한 stress값의 기준에 따르면 .2 이상인 경우 적합도가 매우 나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는 수리통계학적인 기준이며,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concept mapping) 연구에서의 stress 값은 평균 .285, 표준편차는 .04로서 stress 값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은 .205~.365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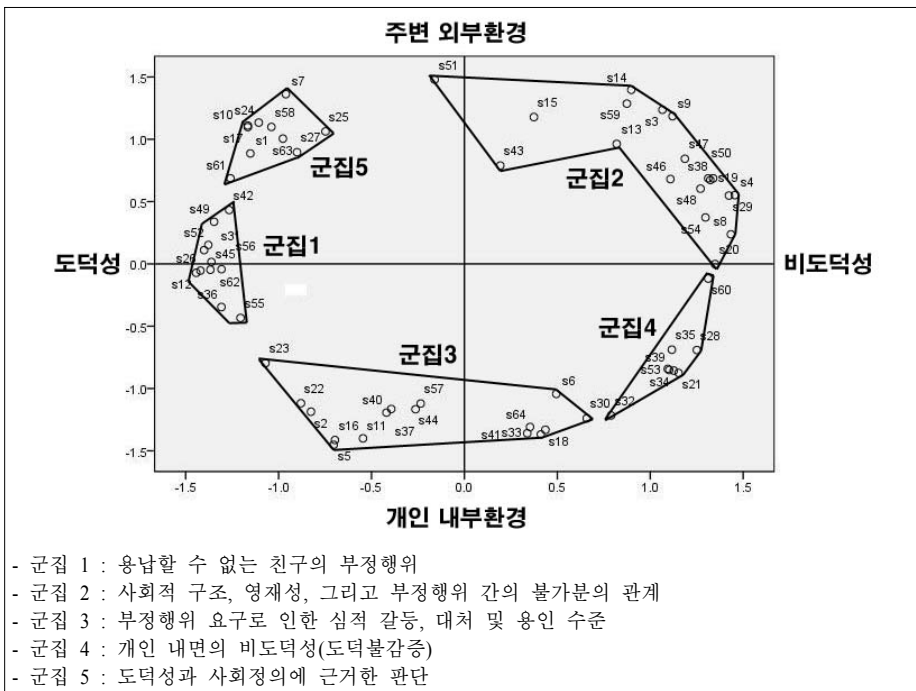
타난 stress 값 .253은 개념도를 위한 MDS에 적합한 값의 범위(.205~.365)를 충족시킨다.

또한, MDS의 분석결과에 대한 또다른 적합도 판단기준(index of fitness)인 RSQ는 회귀분석에서의 결정계수 R<sup>2</sup>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MDS로 변환된 자료가 전체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6 이상이면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얻어진 RSQ 값은 .665로서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MDS를 통해 도출된 각 개별 진술문들의 좌표 값을 기준으로 하여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HCA)를 실시하였고, 여기에서 얻어진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토대로 하여 총 5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는데, 각 군집별 진술문들과 서로 다른 군집 간의 진술문들을 서로 비교, 검토하여 각 군집별로 개념의 명료성과 독자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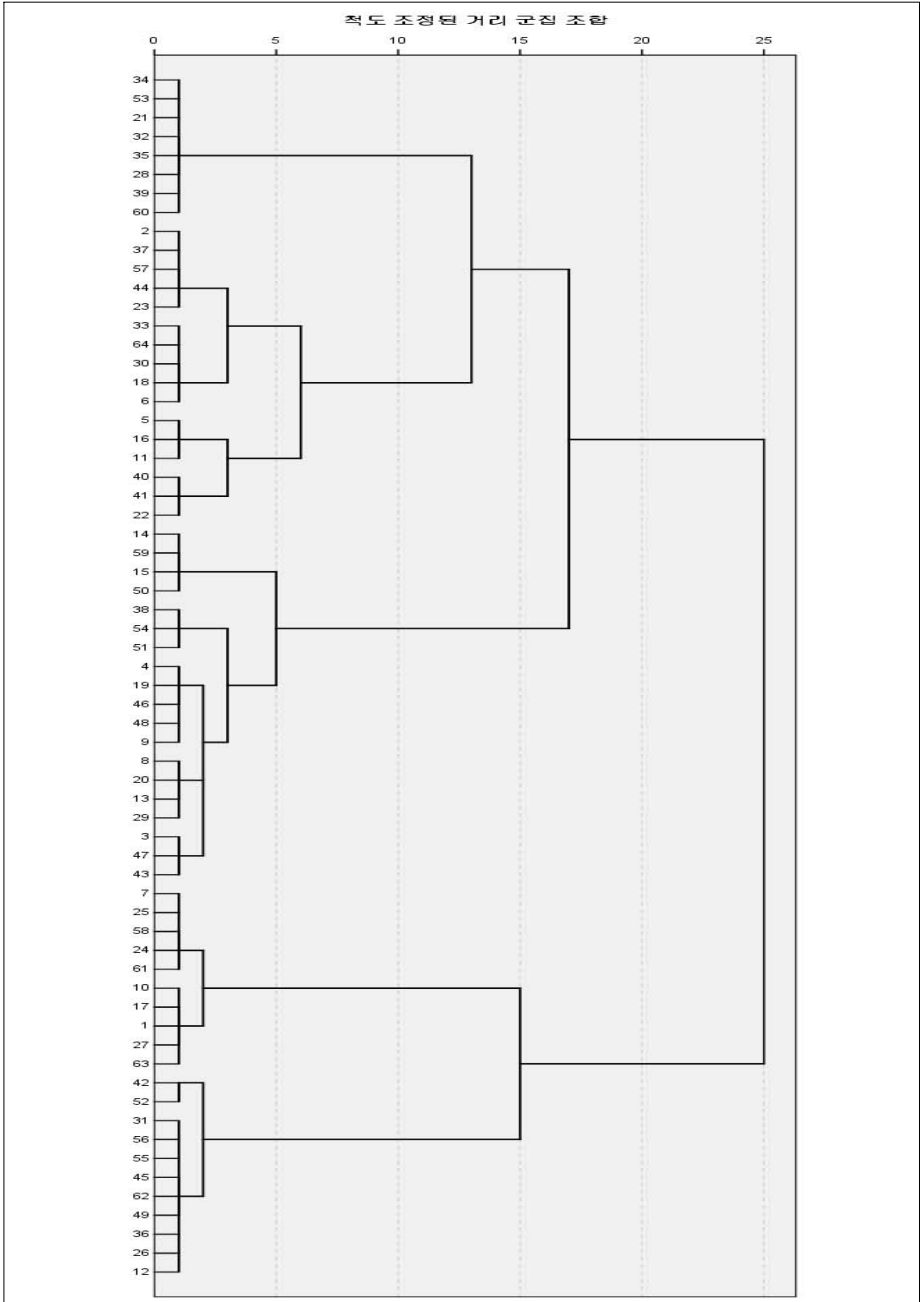
MDS와 HCA의 결과로 도출된 각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평면 상에 표시된 군집들 간의 상대적 위치, 같은 군집으로 묶인 진술문들의 내용, 카드분류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군집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2차원 좌표평면 상의 두 좌표축에 대한 명명은 좌표평면 상의 분포 위치에 따른 각 개별 진술문들의 의미의 유사성과 대비성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도출된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에 대한 HCA 개념도와 덴드로그램은 각각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의 개념도





[그림 2]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의 덴드로그램

본 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위 개념도는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을 서술하는 진술문들이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동일한 범주로 분류된 빈도를 반영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각 점들의 위치가 서로 가까울수록 더욱 빈번하게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도 상에서의 서로 근접한 점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그것들을 서로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진술문들의 좌표값을 이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HCA)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 영재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은 총 5개의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군집명은 ‘용납할 수 없는 친구의 부정행위’, ‘사회적 구조, 영재성, 그리고 부정행위 간의 불가분의 관계’, ‘부정행위 요구로 인한 심적 갈등, 대처 및 용인 수준’, ‘개인 내면의 비도덕성(도덕불감증)’, ‘도덕성과 사회정의에 근거한 판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차원 좌표평면 상의 분포 위치에 따른 각 개별 진술문들의 의미의 유사성과 대비성 등을 종합하고 각 군집의 위치 등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영재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전체적인 인식 구조는 크게 좌우로는 ‘도덕성’과 ‘비도덕성’, 상하로는 ‘주변 외부환경’과 ‘개인 내부환경’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 영재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의 하위범주를 각 군집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납할 수 없는 친구의 부정행위’ 군집은 주변 친구의 부정행위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심경과 그에 대한 도덕적 관점에서의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사회적 구조, 영재성, 그리고 부정행위 간의 불가분의 관계’ 군집은 학업부정행위의 발생에 대한 원인을 주변 사람, 분위기, 비도덕적인 상황 등과 같은 사회적 구조와 그것으로부터의 유, 무언의 압력 등 학생의 주변 외부환경에서 찾고 있으며, 영재학생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재성으로 인해 일반학생보다 더 많은 부정행위 상황에 노출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부정행위 요구로 인한 심적 갈등, 대처 및 용인수준’ 군집은 부정행위 요구로 인한 선악의 선택상황에서 느끼는 갈등과 대처 방법,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감내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넷째, ‘개인 내면의 비도덕성(도덕불감증)’ 군집은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 개인의 도덕불감증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비도덕적인 생각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째, ‘도덕성과 사회정의에 근거한 판단’ 군집은 네 번째 군집과는 정반대의 성격으로서, 정의감과 도덕성에 근거하여 부정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2. 고등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 차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차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 개념도에서 추출된 총 64개의 진술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재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에 배부된 설문지는 서로 동일하며, 개별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Likert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조금 그렇지 않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6점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홀수 배제에서 나타나게 되는 ‘보통이다’라는 선택을 배제하여 동의·비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두 집단의 응답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영재학생, 일반학생이라는 서로 다른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두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들을 독립적으로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유사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두 표본 집단의 등분산성이 미리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를 비교한 결과 각 군집별로 인식의 일치 및 불일치 여부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용납할 수 없는 친구의 부정행위’, ‘도덕성과 사회정의에 근거한 판단’ 군집은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전무하거나 매우 미미한 반면, ‘사회적 구조, 영재성, 그리고 부정행위 간의 불가분의 관계’, ‘부정행위 요구로 인한 심적 갈등, 대처 및 용인수준’, ‘개인 내면의 비도덕성(도덕불감증)’ 군집은 각각 19문항 중 12문항, 16문항 중 7문항, 8문항 중 6문항이 동의 정도에서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두 집단 간의 인식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별 개별 진술문에 대한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동의 정도 및 그 차이의 유의미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 통계값은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고등학교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 차

군집	진술문	영재 M(SD)	일반 M(SD)	$t$	$p$
용납할 수 없는 친구의 부정행위 (11문항)	12. 내 친구가 부정행위를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친구에 대해서 신뢰감을 느낄 수 없다.	3.76(1.43)	3.46(1.57)	1.658	.099
	26. 내가 내 친구의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 친구를 위해서이다.	3.50(1.41)	3.39(1.39)	.685	.494
	31. 친구의 부정행위는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을지라도 결국은 나의 노력을 훔쳐가는 행위이다.	4.61(1.27)	4.76(1.02)	-1.055	.293
	36. 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선생님에게 적발되길 바란다.	3.61(1.32)	3.63(1.33)	-.146	.884
	42. 부정행위로 좋은 성적을 받은 너는 나중에 분명히 혼쫓이 날 것이다.	4.37(1.38)	4.56(1.22)	-1.185	.237
	45. 나는 친구의 부정행위를 반드시 신고할 것이다.	3.00(1.20)	3.20(1.27)	-1.361	.175
	49. 부정행위가 적발된 친구를 동정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4.13(1.16)	4.06(1.24)	.487	.627
	52.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주변 친구를 보면 그의 장래에 대해 불쌍함을 느낀다.	3.86(1.43)	3.56(1.39)	1.754	.080
	55.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정각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적어서 억울하다.	3.82(1.30)	3.76(1.42)	.369	.713
	56. 친구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나는 허무감을 느낀다.	3.76(1.52)	3.94(1.38)	-1.015	.311
	62. 그 친구가 나와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의 부정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는 없다.	3.80(1.35)	3.84(1.48)	-.279	.780

군집	진술문	영재 M(SD)	일반 M(SD)	t	p
사회적 구조, 영재성, 그리고 부정 행위 간의 불가분의 관계  (19문항)	3.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비판하기 전에 성적 지상주의에 빠진 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4.52(1.49)	5.00(1.26)	-2.916**	.004
	4.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다.	2.33(1.43)	2.27(1.43)	.350	.727
	8. 부정행위는 성적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3.25(1.55)	3.31(1.45)	-.300	.764
	9. 학생이 공부부터 잘해야 다른 것들도 잘 한다는 인식 때문에 부정행위는 발생한다.	4.13(1.59)	4.67(1.25)	-3.198**	.002
	13.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는 순전히 개인의 의지력의 문제이다.	4.30(1.50)	4.69(1.16)	-2.450*	.015
	14. 성적이 보통인 일반학생보다는 영재학생들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른다.	2.36(1.33)	3.10(1.29)	-4.744***	.000
	15. 부정행위에 있어서 영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도덕적일 거리는 기대감은 없다.	3.99(1.40)	4.44(1.32)	-2.735**	.007
	19. 주변 사람들의 내에 대한 높은 기대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부담감으로 인해 부정행위를 한다.	2.67(1.49)	3.11(1.43)	-2.515*	.012
	20.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원하므로 부정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	3.82(1.54)	3.94(1.23)	-.759	.448
	29. 부정행위는 치밀한 계획보다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한다.	4.27(1.32)	4.60(1.14)	-2.261*	.025
	38. 부정행위에 대한 기혹한 처벌이 오히려 부정행위를 조장한다.	2.39(1.30)	2.79(1.29)	-2.626**	.009
	43. 부정행위도 습관이다. 과제를 베끼는 아이들은 늘 정해져 있다.	4.78(1.34)	4.76(1.11)	.168	.867
	46. 우리나라의 교육이 결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부정행위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4.48(1.33)	5.14(0.92)	-4.885***	.000
	47. 중요한 시험보다는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더 많이 발생한다.	4.36(1.50)	4.11(1.44)	1.436	.152
	48. 자신의 흥미와 관련 없는 분야에까지 좋은 성적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일어난다.	4.56(1.30)	5.04(1.07)	-3.396**	.001
	50. 똑똑한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 부정행위의 충동을 느낀다.	3.46(1.56)	3.83(1.22)	-2.227*	.027
	51.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매우 강력하게 한다면 부정행위는 근절될 수 있다.	3.18(1.51)	3.24(1.57)	-.364	.716
	54. 학생이란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부정행위를 강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2.76(1.24)	2.86(1.31)	-.636	.525
	59. 영재들은 일반 학생에 비해서 부정행위의 유혹을 더 많이 받는다.	2.54(1.37)	3.50(1.36)	-5.942***	.000
부정 행위 요구로 인한 심적 갈등, 대처 및 용인 수준  (16문항)	2. 중요한 시험에서 타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매우 나쁘지만,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점수라면 묵인할 수 있다.	3.08(1.49)	2.99(1.55)	.506	.614
	5. 친구들이 내가 한 과제를 베끼는 것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보여준다.	3.60(1.38)	3.65(1.41)	-.309	.757
	6. 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친구들이 알았을 때, 다른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와는 달리 더 유난스럽게 반응하는 것은 싫다.	3.51(1.54)	4.05(1.27)	-3.233**	.001
	11. 과제를 보여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도덕성과 교우관계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보여주게 된다.	4.25(1.37)	4.16(1.28)	.564	.573
	16. 친구들이 보여 달라고 하면 짜증나고 당황스럽지만 거절하기는 힘들다.	4.00(1.40)	3.76(1.45)	1.432	.153

군집	진술문	영재 M(SD)	일반 M(SD)	<i>t</i>	<i>p</i>
부정행위 요구로 인한 심적 갈등, 대처 및 용인 수준 (16문항)	18. 평가에 반영되는 과제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과제는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용인해도 된다.	2.99(1.49)	3.59(1.40)	-3.479**	.001
	22. 친구가 나에게 답을 물어왔는데 나는 그 답을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했다.	3.08(1.49)	3.24(1.47)	-.897	.370
	23. 부정행위는 그 결과가 어떻건 간에 궁극적으로 배긴 사람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므로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별 거부감이 없다.	2.63(1.33)	2.72(1.45)	-.570	.569
	30. 과제물을 제출할 때 대부분을 자신의 힘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만 약간 베끼는 것은 괜찮다.	3.75(1.45)	4.21(1.22)	-2.930**	.004
	33. 친구의 답을 베끼는 것에 비해서 친구에게 자신의 답을 보여주는 것은 별로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	3.42(1.52)	3.51(1.39)	-0.570	.569
	37. 친구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3.04(1.30)	3.29(1.39)	-1.564	.119
	40. 내 성적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친구가 빼먹은 부분을 알고서도 알려주지 않은 행위로 부정행위이다.	3.05(1.51)	2.39(1.31)	3.908***	.000
	41. 조별 과제에 적합한 책을 도서관에서 발견한 후 다른 조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서가에 꽂아놓고 나올 것이다.	2.20(1.46)	3.06(1.56)	-4.614***	.000
	44. 부정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남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3.75(1.43)	3.07(1.49)	3.884***	.000
	57. 어차피 모든 건 개인의 사정이나 주변 친구의 부정행위에 대해 별 신경 안 쓴다.	3.01(1.37)	3.08(1.45)	-.384	.701
64. 주변의 친한 한두 명에게 보여주는 것 정도는 괜찮다.	2.78(1.33)	3.16(1.34)	-2.405*	.017	
개인 내면의 비도덕성 (도덕 불감증) (8문항)	21. 부정행위를 하여 좋은 성과를 얻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 될 수 있다.	2.18(1.35)	2.54(1.50)	-2.151*	.032
	28.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 양심의 가책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안도감이 더 크다.	2.50(1.38)	2.73(1.40)	-1.380	.169
	32. 부정행위를 항상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그것이 좋을 때도 있다.	2.93(1.38)	3.34(1.36)	-2.491*	.013
	34. 과제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것도 능력이다.	2.92(1.52)	3.66(1.50)	-4.087***	.000
	35.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의 점수를 관리하는 능력의 하나이며, 부정행위를 당한 사람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둑맞은 것이기에 평정한 것이다.	2.26(1.28)	2.39(1.27)	-.870	.385
	39. 부정행위를 성공하면 죄책감이나 수치심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1.69(1.03)	2.00(1.19)	-2.332*	.020
도덕성과 사회 정의에 근거한 판단 (10문항)	53. 부정행위는 그에 대한 수고와 더불어 실패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므로 그 또한 실력이다.	2.30(1.23)	2.99(1.46)	-4.243***	.000
	60. 부정행위를 옹호하며 그것 또한 실력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2.47(1.37)	2.79(1.36)	-1.973*	.049
	1. 부정행위를 하면 내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5.11(1.10)	4.98(1.13)	.959	.338
	7. 부정행위를 하면 당장은 성적이 잘 나오겠지만 훗날 분명히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5.23(1.01)	5.16(0.93)	.528	.598
10. 부정행위를 통한 고득점보다는 몇몇한 저득점이 더 좋다.	4.23(1.45)	3.89(1.51)	1.963	.051	
17. 부정행위를 할 바엔 차라리 틀리는 게 낫다.	4.47(1.26)	4.06(1.32)	2.653**	.008	

군집	진 술 문	영재 M(SD)	일반 M(SD)	t	p
	24. 부정행위를 통해 좋은 직장을 얻더라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4.42(1.42)	4.48(1.51)	-3.63	.717
도덕성과 사회 정의에 근거한 판단	25. 부정행위로 인한 자신의 능력의 과대평가는 결과적으로 주변의 기대를 높িয়ে 되어 결국 그 사람을 옥죄는 결과를 가져온다.	4.82(1.11)	4.84(1.01)	-1.50	.881
	27. 부정행위는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행 중에서 가장 중대한 것이다.	2.85(1.48)	2.91(1.48)	-3.53	.724
	58. 부정행위로 인해 좋은 점수를 얻더라도 그걸 본 주위 친구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나에게 손해이다.	4.55(1.30)	4.35(1.29)	1.293	.197
(10문항)	61. 타인의 부정행위를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것이다.	4.58(1.14)	4.41(1.10)	1.221	.223
	63. 부정행위는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의 노력을 업신여기는 행위이다.	4.90(1.04)	4.89(1.07)	.125	.901

\*  $p < .05$ , \*\*  $p < .01$ , \*\*\*  $p < .001$

( $p < .05$ 에서 두 집단 간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진술문들만 고딕체로 표시함)

첫째, ‘용납할 수 없는 친구의 부정행위’ 군집에서는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진술문이 단 한개도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진술문 ‘친구의 부정행위는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을지라도 결국은 나의 노력을 흠쳐가는 행위이다.’(영재  $M=4.61$ , 일반  $M=4.76$ ), ‘부정행위로 좋은 성적을 받은 너는 나중에 분명히 혼쫌이 날 것이다.’(영재  $M=4.37$ , 일반  $M=4.56$ ), ‘부정행위가 적발된 친구를 동정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영재  $M=4.13$ , 일반  $M=4.06$ )에서 다른 진술문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동의하였으며, 이로 볼 때 두 집단 모두 친구의 부정행위에 대해 용인하기보다는 그것을 옳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둘째, ‘사회적 구조, 영재성, 그리고 부정행위 간의 불가분의 관계’ 군집은 두 집단 간의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문 중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비판하기 전에 성적 지상주의에 빠진 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영재  $M=4.52$ , 일반  $M=5.00$ ), ‘우리나라의 교육이 결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부정행위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영재  $M=4.48$ , 일반  $M=5.14$ ), ‘자신의 흥미와 관련 없는 분야에까지 좋은 성적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일어난다.’(영재  $M=4.56$ , 일반  $M=5.04$ )처럼 부정행위의 원인을 개인보다는 사회 탓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다소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보통인 일반학생보다는 영재학생들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른다.’(영재  $M=2.36$ , 일반  $M=3.10$ ), ‘부정행위에 있어서 영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도덕적인 거라는 기대감은 없다.’(영재  $M=3.99$ , 일반  $M=4.44$ ), ‘영재들은 일반학생에 비해서 부정행위의 유혹을 더 많이 받는다.’(영재  $M=2.54$ , 일반  $M=3.50$ )에서 보듯이 일반학생이 인식하는 영재들의 부정행위와 영재학생 자신들이 인식하는 영재들의 부정행위는 서로 인식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정행위는 치밀한 계획보다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한다.’(영재  $M=4.27$ , 일반  $M=4.60$ ), ‘부정행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오히려 부정행위를 조장한다.’(영재  $M=2.39$ , 일반  $M=2.79$ ), ‘똑똑한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 부정행위의 충동을 느낀다.’(영재  $M=3.46$ , 일반  $M=3.83$ )와 같이 부정행위의 발생 배경 및 원인과 관련한 진술문

에서도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간에 유의미한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정행위 요구로 인한 심적 갈등, 대처 및 용인수준’ 군집에서는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진술문들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에 반영되는 과제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과제는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용인해도 된다.’(영재  $M=2.99$ , 일반  $M=3.59$ ), ‘과제물을 제출할 때 대부분을 자신의 힘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만 약간 베끼는 것은 괜찮다.’(영재  $M=3.75$ , 일반  $M=4.21$ ), ‘주변의 친한 한 두명에게 보여주는 것 정도는 괜찮다.’(영재  $M=2.78$ , 일반  $M=3.16$ )와 같이 부정행위를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영재학생과 일반학생 간에 인식 차가 존재하였으며 영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내 성적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친구가 빼먹은 부분을 알고서도 알려주지 않은 행위도 부정행위이다.’(영재  $M=3.05$ , 일반  $M=2.39$ ), ‘조별 과제에 적합한 책을 도서관에서 발견한 후 다른 조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서가에 꽂아놓고 나올 것이다.’(영재  $M=2.20$ , 일반  $M=3.06$ )와 같이 소극적, 간접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또한 ‘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친구들이 알았을 때, 다른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와는 달리 더 유난스럽게 반응하는 것은 싫다.’(영재  $M=3.51$ , 일반  $M=4.05$ )는 진술문에 대해서도 두 집단 간의 인식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 내면의 비도덕성(도덕불감증)’ 군집은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인식 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내의 거의 모든 진술문들에 대해서 동의 정도에 대한 평균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부정행위를 하여 좋은 성과를 얻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 될 수 있다.’(영재  $M=2.18$ , 일반  $M=2.54$ ), ‘부정행위를 항상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그것이 좋을 때도 있다.’(영재  $M=2.93$ , 일반  $M=3.34$ ), ‘과제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것도 능력이다.’(영재  $M=2.92$ , 일반  $M=3.66$ ), ‘부정행위를 성공하면 죄책감이나 수치심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든다.’(영재  $M=1.69$ , 일반  $M=2.00$ ), ‘부정행위는 그에 대한 수고와 더불어 실패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므로 그 또한 실력이다.’(영재  $M=2.30$ , 일반  $M=2.99$ ), ‘부정행위를 옹호하며 그것 또한 실력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영재  $M=2.47$ , 일반  $M=2.79$ )와 같이 거의 모든 진술문에 대해서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인 관점에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모두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각 진술문에 동의를 나타내어 해당 학업부정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덕성과 사회정의에 근거한 판단’ 군집에서는 두 집단 간의 인식 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진술문이 거의 없었으며, 유일하게 ‘부정행위를 할 바엔 차라리 틀리는 게 낫다.’(영재  $M=4.47$ , 일반  $M=4.06$ )라는 진술문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이 또한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더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재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영재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리 및 시각화함으로써 그들의 아이디어를 보다 현장감 있게 탐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잠재적 인식을 구조적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령대의 학생 집단 중에서 특히 입시에 직면하여 학업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고등학교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두 집단 간의 인식 차를 살펴봄으로써 영재의 도덕성이라는 정의적 영역의 특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배영민(2011)은 영재의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그 대상이 교사나 전문가, 학부모 등 영재교육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대상을 통해 영재의 특성을 연구한 후 영재들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어서 실제 영재의 특성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은 그런 면에서 볼 때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그 결과가 가지는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교 영재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전체적인 인식 구조는 크게 좌우로는 ‘도덕성’과 ‘비도덕성’, 상하로는 ‘주변 외부환경’과 ‘개인 내부환경’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덕성’과 ‘비도덕성’은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생각이 정의(正義)와 불의(不義)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의미하며, ‘주변 외부환경’과 ‘개인 내부환경’은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이 내면과 외면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귀인하는지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재들의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개념도가 이렇듯 서로 상반되는 두 쌍의 개념의 축을 기준으로 인식의 구조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재학생들은 학업부정행위에 대해서 매우 정의롭고 친사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행위를 용인하는 수준과 관련하여 일반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친구의 부정행위에 관해서 비록 자신과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포용하기보다는 정의감의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즉, ‘부정행위를 성공하면 죄책감과 수치심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부정행위를 하여 좋은 성과를 얻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 될 수 있다.’, ‘부정행위는 그에 대한 수고와 더불어 실패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므로 그 또한 실력이다.’ 등처럼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반사회적인 내용의 진술문에는 매우 강한 거부감을 표현한 반면, ‘부정행위를 하면 당장은 성적이 잘 나오겠지만 훗날 분명히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부정행위를 하면 내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등의 정의감과 도덕성에 근거한 진술문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rman이 연구했던 영재들의 경우에도 도덕성 발달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뛰어난 성숙도를 보였으며, Kohlberg의 인지적 발달 이론에 의하면 지적인 성숙이 도덕적 발달이라는 측면에서의 개인의 성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최근의 영재들의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현주와 신종호(2009)에 의하면 영재들은 가치나 도덕적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여 그들은 어떤 행동의 선과 악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며, 또한 공정하고 정직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인간의 도덕성을 평가한다고 하였고, Clark(2010)와 홍덕표 외(2011) 등은 영재들은 높은 정의감과 고도의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셋째,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영재성이 학업부정행위의 경향과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 대해서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재들은 일반 학생에 비해서 부정행위의 유혹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진술문에 대해서 일반학생들은 보통 정도로 동의한 반면 영재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고, ‘성적이 보통인 일반학생보다는 영재학생들이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른다.’라는 진술문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 수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부정행위에 있어서 영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도덕적일 거라는 기대감은 없다.’라는 진술문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그렇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나 그 동의 정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일반학생들은 영재들이란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무언가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영재학생들은 자신들의 집단이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친구들이 알았을 때, 다른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와는 달리 더 유난스럽게 반응하는 것은 싫다.’라는 진술문에서 나온 차이를 볼 때, 일반학생들은 자신이 튀어 보이고 주목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영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학습의 효과로 추측되는데, 영재들은 주변의 시선과 기대감에 노출된 경험이 일반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에 그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넷째, 친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인식은 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재들이라고 해서 친구의 부정행위에 대해 특별히 더 그것을 옹호한다거나 용서할 수 있다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친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포용심이 아니라 정의감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권선징악(勸善懲惡)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영재학생들은 학업부정행위의 원인을 성적 지상주의, 결과 중심주의 등과 같은 사회적 구조와 모순으로부터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찾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영재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내적 통제와 책임감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비판하기 전에 성적 지상주의에 빠진 사회부터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결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부정행위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자신의 흥미와 관련 없는 분야에까지 좋은 성적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부정행위는 일어난다.’ 등과 같이 부정행위의 원인을 부조리한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경향에 대하여 영재들은 상대적으로 일반학생들보다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들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그들의 내적 통제와 책임감에 관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영재들의 실망과 좌절은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정한 높은 기대수준에서 비롯

되기 때문이다(배영민, 2011). 그렇기 때문에 영재들은 부정행위와 같은 부정적 상황에 대한 원인을 사회적 구조로 돌리는 경향이 일반학생들보다 다소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부정행위를 용인할 수 있는 수준과 관련하여 영재학생들은 일반학생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에 반영되는 과제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과제는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용인해도 된다.’, ‘과제물을 제출할 때 대부분을 자신의 힘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만 약간 빼기는 것은 괜찮다.’, ‘주변의 친한 한두 명에게 보여주는 정도는 괜찮다.’ 라는 진술문들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영재학생은 일반학생보다 더 높은 도덕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시킬 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진술문 ‘내 성적만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친구가 빼먹은 부분을 알고서도 알려주지 않은 행위도 부정행위이다.’와 ‘조별 과제에 적합한 책을 도서관에서 발견한 후 다른 조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서가에 꽂아놓고 나올 것이다.’에서 볼 수 있듯이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이 일반학생들과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이것 역시 영재들의 훨씬 더 엄격한 잣대의 표출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개념도 방식을 활용하여 고등학교 영재학생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학업부정행위에 관해 더 도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것처럼 도덕 판단력이 앞선다고 하여 실제로 도덕적인 실천력 또한 더 우수한가에 관한 행동 실험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물론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영재학생들의 지적 영역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덜 강조되어 왔던 정외적 영역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및 지도방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자는 연구의 과정 중에 영재들이 똑같은 학업부정행위를 목격한 상황에서 그 부정행위의 주체가 친구나 모르는 사람이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처방식이 매우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사실 이는 학업부정행위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서도 흔히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인데, 똑같은 원인 행위에 대하여 내 편인 자와 내 편이 아닌 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상이하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심리 기전을 다루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의 개념도에서 도출된 모든 진술문 중에서 영재들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부정행위를 하면 당장은 성적이 잘 나오겠지만 훗날 분명히 어떠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기 도덕성이 이후 사회생활에서의 만족 및 성공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추적 및 종단 연구는 영재들의 도덕성의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Damon(2008)의 비범한 도덕적 현신에 관한 연구나, Gardner, Csikszentmihalyi와 Damon(2001) 등의 학자들이 삶에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굿 워크(good work)’를 이룬 사람들에 관한 연구를 한국적

상황에서 확장한다는 맥락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입시에 직면하여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연령대인 고등학교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들보다 더 하위 연령대인 중학교와 초등학교 영재 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인식과 비교하여 어떤, 그리고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하는 비교연구 역시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김도균 (2001). **여고생의 학업부정행위 경향성에 대한 원인 및 시험 불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김승희 (2011). **초등 영재아와 일반아의 가능한 자기 비교 연구: 기대하는 자기와 두려운 자기**.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김언주, 이군현, 이기문, 하종덕 (1998). **과학영재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 김호진 (2008).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교육대학교.
-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배영민 (2011).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바라보는 영재의 특성 인식과 우리나라 영재교육에 주는 시사점**.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연합뉴스 (1992.01.21.). **부천 서울신학대서 후기대 입시문제지 도난**.
- 연합뉴스 (2004.11.21.). **수능 휴대폰 커닝, 예고된 범행 가능성**.
- 연합뉴스 (2011.11.11.). **수능 부정행위 160명 적발 무효처리 방침**.
- 오영희 (1983). **도덕적 판단 수준과 시험부정행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오영희 (1999). **성별 학년 학교에 따른 대학생들의 학업부정행위 차이 비교**. **교육학연구**, 37(1), 105-125.
- 오영희 (2004). **한국 고등학생용 학업부정행위 척도 개발 연구**. **덕성여대논문집**, 33, 161-181.
- 오영희 (2008). **학업부정행위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의 인식 조사**. **한국청소년연구**, 19(1), 215-242.
- 유미현, 박은이, 홍훈기 (2008). **과학 영재와 일반 학생의 도덕판단력 비교 및 중·고등학교 과학영재의 도덕판단력 발달 경향**. **국제과학영재학회지**, 2(1), 1-11.
- 이규태 (1991). **돈의 한국학**. 서울: 기린원.
- 이신동, 이정규, 박춘성 (2009). **최신영재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정규 (2003).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서울: 집문당.
- 이학식, 임지훈 (2011). **SPSS 18.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이현정 (2010). **초등과학영재와 일반아동의 도덕판단력 발달 비교**.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이현주, 신종호 (2009). **영재아동 바로 알기**. 서울: 학지사.
- 최윤정, 김계현 (2007). 고학력 기혼여성의 진로단절 위기 경험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8(3), 1031-1045.
- 한국선, 우남희 (2005). 한국아동의 학업부정행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10, 174-186.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허정경 (2010). 청소년의 학업부정행위와 관련 변인 연구. **한국교육**, 37(3), 29-53.
- 홍덕표, 김종수, 문홍태, 김재우, 김덕순, 임은정, 양맹모, 이진우 (2011). **영재교육실무편람**. 서울특별시교육청.
- Clark, B. (2010). **영재교육과 지능계발**(김명숙, 서혜애, 이미순, 전미란, 진석언, 한기순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Damon, W. (2008). *The path to purpose: How young people find their calling in life*. New York: Free Press.
- Gardner, H., Csikszentmihalyi, M., & Damon, W. (2001). *Good work: When excellence and ethics meet*. New York: Basic Books.
- Goodyear, R. K., Tracey, T. J. G.,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 (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 Gross, M. (1993). *Exceptionally Gifted Children*. New York: Routledge.
- Johnsen, J. A., Biegel, D. E., & Shafran, R. (2000). Concept Mapping in Mental Health : Uses and Adapt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67-75.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Paulson, B. L., & Worth, M. (2002). Counseling for suicide: Client Percep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 86-93.
- Trochim, W. M. K.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 Abstract =

## High School Gifted Students' Perception on Cheating in School

Sang-Woo Kim

*University of Incheon*

Ki-Soon Han

*University of Incheon*

This study explores high school gifted students' perception of cheating in school using the concept mapping method. The map shows the gifted students' concept structure and the different perception between gifted and non-gifted students on cheating. For the purpose, 63 high school gifted students participated at the brainstorming stage to gather the possible related statements. Finally, 64 statements were confirmed and these were divided and evaluated by 13 focus group students. Then, they were analyzed by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processed by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compiled from this procedure show that high school gifted students' perception of cheating is classified into five clusters: "unacceptable cheating behaviors of friends", "an inseparable relation among social structure, giftedness and cheating", "conflict, coping skills, and tolerance related to the cheating", "immorality in one's inner person" and "the judgement based on morality and social justice". In addition, 150 gifted students and 160 non-gifted students checked the degree of agreement to each statement with the likert 6 points scale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wo clusters, "unacceptable cheating behaviors of friends" and "the judgement based on morality and justice", while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erception gaps in three clusters, "inseparable relation among social structure, giftedness and cheating", "conflict, coping skills, and tolerance related to the cheating" and "immorality in one's inner person". Implications of the study related to the gifted students' moral behaviors were discussed in depth.

**Key Words:** Giftedness, High school gifted students, Cheating in school, Morality

1차 원고접수: 2013년 2월 4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2월 26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2월 26일